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연구

문 주 영* · 강 경 자*

한국실크연구원 디자인개발팀,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The Image of the Stripe Clothes according to Value Contrast Coloration

Ju-young Moon[†] and Kyung-Ja Kang^{*}

Dept. of Design Development, Korea Silk Research Institute

Dept. of Clothing & Textil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8. 3. 4. 접수일 : 2008. 12. 19. 수정완료일 : 2008. 12. 30. 게재확정일)

Abstract

This study was meant to offer the data for predicting the product plan answering the diverse demands for consumer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mage and formative property by transforming the stripe patterns. The concrete study way is composed of the collected stimulus centering on the interval of the stripe pattern and value contrast coloration. Consequently 192 stimuli, changed by the pattern direction and pattern interval, clothing style, and contrast coloration, are selected. The experimental materials made for this study a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 The statistics way used in analysis was factor analysis, ANOVA, dispersion analysis,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ed as following. Firstly, In the value contrast, a pair of 27 adjectives were made of attractiveness, activeness, graceful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dimension. Secondly, the direction of the pattern, interval, clothing style, and contrast coloration were respectively transformed according to value contrast.

Key words: clothing style(의복 스타일), stripe direction(스트라이프 방향), stripe width(스트라이프 폭), value contrast(명도 콘트라스트), clothing coloration(의복 배색).

I. 서 론

문양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시대의 문화, 정서를 대변함과 동시에 한 시대의 양식을 표현해 왔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라 문양이 갖는 의미와 그 문양이 들어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문양 중에서도 스트라이프는 반복과 변화에 의한 강렬한 시각적 효과 때문에 의복의 성격과 착용자의 이미지는 극단적으로만 인식되

었는데, 특히 중세의 스트라이프 문양은 무질서와 범법을 상징하고, 확연히 눈에 띄는 문양으로 인해 이러한 문양이 들어간 옷을 착용했던 자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스트라이프 문양은 점차 질서를 뜻하는 상징적 기호로 사용되었고, 산업 혁명 후, 직조 기술의 발달과 현대적인 조형감각의 추구로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모든 의상에 급진적으로 사용되어 현재에는 누구나 소유하고 즐겨 착용하는 기본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 교신저자 E-mail : mjyhappy@empal.com

Michel¹⁾은 스트라이프 문양은 문양이면서 바탕이고, 유한이면서 무한이며, 부분이면서 전체여서 스트라이프 문양은 좀처럼 통제가 어렵지만 스트라이프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스트라이프의 간격, 넓이, 방향, 배열 방식 등에 변화를 줄 경우, 복식의 미적가치와 기능을 다양하게 전환시킬 수도 있고, 시각적 착시효과를 일으키거나 내면의식에 의해 표현된 상징기호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²⁻⁷⁾. 의복 이미지는 복식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선, 색채, 재질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재질에 스트라이프 문양이 있을 경우 문양 자체보다는 문양의 방향, 폭, 문양에 사용된 색상과 바탕색 등의 시각적 특성들이 매개체로 작용하여 스트라이프 문양의 시각적인 강도나 그 효과는 확연히 달라져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스트라이프 의복 디자인에서 문양의 방향, 폭, 문양과 바탕의 배색 등은 이들 요소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壁谷久代⁸⁾, 上野青一⁹⁾은 의복 디자인에서 색채가 형태나 구성선, 패턴보다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비 조화는 반대되는 느낌을 주거나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들을 대비시켜 얻어지므로 특징이 없는 단조로운 유사 조화에 비해 조화되기가 어렵지만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미적으로 우수하고 강렬하며 현대감각에 맞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¹⁰⁾. 스트라이프와 색채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사용된 변수들은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배색 변화를 통해 스트라이프의 강약이나 리듬감이 달라져 시각적 효과도 다양하게 변화된다고 하였다¹¹⁻¹⁴⁾. 특히 명도차가 큰 배색은 다른 디자인 요소보다도 가장 큰 감성을 유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콘트라스트 배색은 의복에서만이 아니라 문양과 바탕의 배색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 폭을 달리하여 문양과 바탕의 색을 명도 콘트라스트로 배색시켜봄으로써 이들 요소들에 의한 의복의 이미지를 밝혀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색의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요인 구조를 밝히고, 이들 단서 중 어떤 단서들이 상호 작용하여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의복 배색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품 기획시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색채를 보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 자극을 받게 된

- 1) Michel Pastoureau, *악마의 무늬 스트라이프*, 강주현 역 (서울: 이마고 출판사, 2003), p. 141.
- 2)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수직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 요소와 감성과의 관계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6권 1호 (2003), pp. 1-15.
- 3) 최정화, “티셔츠 디자인에 대한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9권 11호 (2005), pp.1410-1420.
- 4) 이영진 외, “블록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 요소가 감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감성과학회지* 5권 3호 (2002), pp. 21-28.
- 5)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원피스 드레스의 줄무늬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권 4호 (1990), pp. 314-323.
- 6) L. D. Marin,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7).
- 7) 居宿昌義, 田中佳子, *염직디자인의 기법*, 이신재 역 (서울: 세진사, 1982).
- 8) 壁谷久代 加藤雪枚, 檜山藤子, “衣服に對する色彩と圖形の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1(8) (1980), pp. 35-42.
- 9) 上野青一, “衣服の嗜好に關る統計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1(7) (1980), pp.42-48.
- 10)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1992), p. 121, p. 176.
- 11)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Op. cit.*, pp. 1-15.
- 12) 김혜수, “스트라이프에 내재된 리듬특성과 복식디자인을 위한 자원화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13) 이영진 외, *Op. cit.*, pp. 21-28.
- 14) 김주은, “의상 디자인 줄무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다. 이는 색이 양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색상, 명도, 채도의 차원을 가진 시각적 경험의 속성으로 시각을 통해 지각되는 생리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색채의 특성은 어떤 관념의 상징, 심리적인 효과, 감성적인 효과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대상의 윤곽과 실체를 쉽게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Kobayashi¹⁶⁾는 색채의 배색 원리를 이용하여 색채의 배색이 특정한 감성이미지와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색채이미지를 형용사 언어를 중심으로 한 감성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특정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색상과 명도와의 상호관계에서 색상 차가 적을수록 그 조화는 명도차에 영향을 받기 쉬우나 색상 차이가 클 때는 명도차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다. 또 명도와 채도와의 상호관계에서는 명도차가 지나치게 적을 때는 채도 차를 크게 하는 것이, 명도차가 클 때는 채도차를 적게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기 쉬운 배색이라고 하였다¹⁷⁾.

색상, 명도, 채도의 차를 크게 한 배색은 대비 현상에 의해서 강렬한 느낌을 준다. 그 중 색상 콘트라스트는 보색 관계의 배색으로 화려하고 강한 느낌과 분명하고 동적인 느낌을 준다는 보색 배색의 색조차에 따른 색채 균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선호하는 배색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배색을 균형적이라고 지각한다고 하였다¹⁸⁻²⁰⁾. 즉 색조차가 큰 대비, 대조 색조끼리의 보색 배색, 명도가 낮은 색과 높은 색과의 조합을 가장 균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화가 Itten

은 “보색의 원리야 말로 조화된 디자인의 기본이다.”라고 하였다. 그에 대한 증거로 눈은 어떤 색에도 그 보색에 의하여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보색이 결여되면 자발적으로 보색을 발생시켜 눈 자체가 스스로 평형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리학적인 사실을 통해 색채 조화의 원리가 보색의 법칙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1,22)}.

색상 콘트라스트 중에서도 빨강/청록 배색은 명도는 비슷해서 두 색채의 대비는 명도 대비보다는 색상 대비를 이루지만 노랑/남색은 표준 명도가 달라서 명도 대비 효과를 나타낸다²³⁾. 명도 콘트라스트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사용하면 산만하고 대비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명도 콘트라스트는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²⁴⁾.

임지영²⁵⁾은 의복 중 남성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의 조화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콘트라스트 배색은 다른 배색 방법보다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 작용하여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의 영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 콘트라스트 배색은 배색 조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배색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을 중심으로 치마, 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을 비교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면적비와 톤 변화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²⁶⁾. 콘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복의 조화감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한국 여대생은 전통적인 한복 배색 즉, 저고리는 밝고 치마는 어둡고 탁한 톤 배색에 익숙해 배색에 대한 경험이 조화감을 평가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다²⁷⁾.

15) G. John, *Color and Mea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 11.

16) Kobayashi Shigenobu, *A Book of Colors*, (Kodansha Amer Inc, 1987).

17) 本明寛, *조형심리학* 일본, 김수석 역 (서울: 지구문화사, 1993), pp. 133-136.

18) 김현성, *색채학*, (서울: 일진사, 2001), p. 51.

19) 김주은, *Op. cit.*, p. 38.

20) 양지영,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보색 배색의 색채 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 84.

21) *Ibid.*, p. 84.

22) T. S. Deborah, *색채심리와 디자인*, 임만택 역 (서울: 태림문화사, 1996), p. 193.

23) R. D. Marilyn,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24) 이은영, *Op. cit.*, p. 121, p. 176.

25) 임지영,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 방법에 따른 조화감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6) 강경자, 문주영, 임지영, “치마·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연구: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권 3호 (2005), pp. 17-26.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 조합에 따른 색채 조화 유형화에 대해 연구한 조민정²⁸⁾은 유사, 대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색상차, 색조 차 순이며, 명도차는 색채 조화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Goethe는 잘 조화된 색채 조화는 색상환과 반대되는 색상과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Chevreul은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설을 기초로 독자적인 색체계를 만들었다²⁹⁾. 이상에서도 콘트라스트 배색된 색채 조합은 강렬하지만 명도 변화를 통해 조화로운 배색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원색과 반대되는 색상 즉 보색 배색을 중심으로 색상, 명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논문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그 이미지에 미치는 단서의 영향을 밝힌다.

연구 문제 2: 문양 방향과 폭, 의복 스타일, 콘트라스트 배색과 명도톤 조합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 실험 절차 및 방법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 착용자의 모델은 제 4차 한

국표준체위예비조사(2003. 5) 자료와 팽숙경, 강경자³⁰⁾가 사용한 기준을 참고로 표준체형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20대 여성 3명을 선정하여 30명의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평가집단에게 평가하게 한 후, 표준체형에 가장 근접한 키 162cm, 몸무게 52kg의 20대 여성 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얼굴형은 ‘얼굴, 한국인의 낮’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균 얼굴 기준인 머리 전체 길이 233.38mm, 얼굴의 길이 194.05mm, 이마의 가로 폭 120.66mm에 가까운 계란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얼굴 색상은 최영훈이 제시한 한국인의 피부색으로 가장 많은 색채로 나타난 6.5YR 7/3으로 하였다³¹⁾.

먼저 의복 스타일은 평가집단에 의해 2가지 스타일군(① 티셔츠/블루데님 팬츠, 자켓/블루데님 스커트, ② 티셔츠/베이지색 면 팬츠, 자켓/베이지색 면 스커트)이 선정되었는데, 2가지 스타일군으로 pre-test를 한 결과, 스타일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20대 여대생들의 소유 정도와 착용 빈도가 높고 스트라이프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티셔츠/블루 데님 팬츠를 캐주얼 스타일로, 자켓/블루데님 스커트를 포멀 스타일로 최종 선정하였다. 자켓의 칼라를 테일러드 칼라로 통제하고, 또 스커트 길이는 무릎 아래 길이로 통제하였다.

문양은 티셔츠와 자켓에 각각 스트라이프 문양으로 통제하고 문양의 폭과 방향에 변화를 주었다.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은 사선을 제외하고 자켓이나 티셔츠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구분하여 수평선, 수직선 두 종류로 제한하였다. 폭은 선행 연구³²⁻³⁴⁾와 2005~2007년 패션컬렉션, 2005~2006년 서울, 대구 지역의 원단시장에 시판되고 있는

27) 강경자, 정수진,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4보): 콘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6호 (2005), pp. 825-836.

28) 조민정,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 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 162-164.

29) F. Birren, *색채의 영향*, 김진한 역 (서울: 시공사, 2003), p. 84.

30) 팽숙경, 강경자,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9권 9/10호 (2005), pp. 1207-1218.

31) 정혜선, 강경자, “헤어스타일·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2004), pp. 460-471.

32) 김혜수, 김영인, “자연물에 나타난 스트라이프의 선과 색채에 의한 리듬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권 1호 (2004), pp. 45-56.

33)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Op. cit.*, pp. 1-15.

34)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Op. cit.*, pp. 314-323.

스트라이프 문양의 폭을 참고로 하여 각각 1.6, 4.0, 6.4, 10.0cm 4가지로 구분하고 문양의 바탕 즉, 폭과 폭사이의 간격은 문양 폭과 동일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의복 색상 중 하의인 스커트와 바지는 pre-test를 통해 데님 소재의 청색으로, 상의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폭과 간격의 배색이 색상과 명도가 콘트라스트 배색이 되도록 통제하였다. 콘트라스트 배색 중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일 경우에는 색의 3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중심으로 그와 180° 보색을 이루는 빨강/청록(R/BG), 노랑/남색(Y/PB), 파랑/주황(B/YR)의 3가지 배색 조합으로 통제하였다. 유사, 대조에 대한 범위는 유사명도의 경우 명도차가 1.5 이내, 대조명도는 명도차가 2.5 이상으로 제한한 이론³⁵⁾과 명도차가 크다는 것은 명도단계에서 5 이상의 차이 이상으로 제한한 이론³⁶⁾에 근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을 기준으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시 채도의 톤 차이는 최소화하고 대비되는 두 색상과의 명도차가 4 이상이 되도록 하여 light/dark, dark/light, pale/grayish, grayish/pale의 4가지 톤배색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색상과 톤을 한국표준색표집(1991)에 근거하여 상의 스트라이프 문양에 사용된 3개의 색상 대비 조합, 4개의 명도 대비 톤 조합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먼저 선정된 두 가지 수준의 의복 스타일을 모델에게 착용시켜 디지털카메라 Nikon Coolpix 8800VR로 촬영한 후, 스트라이프 문양 방향(2: 수평, 수직)과 문양 폭(4: 1.6, 4.0, 6.4, 10.0cm)이 각기 다르게 조합되도록 Nedgraphics CAD system과 Adobe Photoshop CS program을 사용하여 <표 2>와 같이 16

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의복 자극물은 색의 삼속성 즉 색상과 명도가 콘트라스트 배색이 되도록 구분, 조작한 컬러를 상의인 티셔츠와 자켓에 각각 수직, 수평무늬가 되도록 맵핑시켜 최종 자극물을 완성시켰다. 따라서 자극물은 독립변인인 2개의 의복 스타일, 2개의 문양 방향, 4개의 문양 폭, 3개의 색상 조합, 4개의 명도 톤 조합을 조합하여 192개의 자극물이 가로 14.5cm, 세로 21cm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이때 자극물의 배경과 피험자의 외모는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배경색은 white로 처리하고 피험자의 헤어스타일, 얼굴, 자세, 연령을 통제하여 Fuji Xerox Phaser 8500N으로 출력하였다.

2) 실험 설계 및 자극물 평가

본 실험은 2개의 스트라이프 문양 방향과 4개의 폭, 2개의 의복 스타일, 3개의 색상 조합, 4개의 명도 콘트라스트 톤 조합을 독립변인으로 한 5원 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192개의 자극물을 96개의 실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 조합에 2개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하나의 실험 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 하였다. 각 실험 조합별로 피험자 수는 12명씩 피험자 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되었다.

3) 의미 미분 척도

의미 미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의복 착용자와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색상과 톤

톤 조합		색상 조합		
		5R(빨강)-5BG(청록)	5Y(노랑)-5PB(남색)	5B(파랑)-5YR(주황)
색상 콘트라스트	Vivid-vivid	5R 4/14-5BG 5/10	5Y 8.5/14-5PB 4/12	5B 5/10-5YR 6/14
	Light-dark	5R 8/4-5BG 2/4	5Y 9/6-5PB 2/4	5B 8/4-5YR 2/4
명도 콘트라스트	Dark-light	5R 2/4-5BG 8/4	5Y 3/4-5PB 8/4	5B 2/4-5YR 8/6
	Pale-grayish	5R 9/2-5BG 5/2	5Y 9/2-5PB 5/2	5B 9/2-5YR 5/2
	Grayish-pale	5R 5/2-5BG 9/2	5Y 5/2-5PB 9/2	5B 5/2-5YR 9/2

35) 川崎秀昭, 配色入門, (日本色研事業株式会社, 2002).

36) 本明寛, *Op. cit.*, p. 129.

<표 2> 자극물에 사용된 스트라이프 문양

의복 스타일	1.6cm		4.0cm		6.4cm		10.0cm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캐주얼 웨어: 티셔츠/ 팬츠								
포멀 웨어: 자켓/ 스커트								

인상 형성에 관한 선행 연구^{37~42)}에서 사용된 형용사쌍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쌍 10개를 추가하여 총 41쌍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다. 그 결과, 27개의 형용사쌍이 최종 선정되었다. 자극물 속의 착용자 이미지를 측정하는 의미 미분 척도는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여대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180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미비한 자료는 제외하

고 최종적으로 1,15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06년 5~9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스트라이프 문양 방향과 폭, 의복 스타일, 색상과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 회전을 이용하였다. 각 이미지 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 검증에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5가지 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5원변량 분석과 다중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37) 정해선, 강경자, *Op. cit.*, pp. 460-471.

38) 최수경, 강경자,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 · 폭의 변화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4호 (2003), pp. 459-473.

39) 김윤경, 강경자, “의복스타일과 색상 · 톤 조합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4호 (2003), pp.395-406.

40) 문주영, 강경자, “상 · 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3), pp. 111-122.

41)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Op. cit.*, pp. 1-15.

42)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Op. cit.*, pp. 314-323.

IV. 연구 결과

1.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스트라이프 문양과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문양의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의복 스타일, 문양 방향과 폭, 색상 조합, 명도가 대비되도록 톤 조합에 변화를 주어 192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자극물은 41개의 형용사쌍을 의미 미분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 분석한 결과 27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고, 아이겐값이 1.0 이상인 형용사쌍들이 5개의 요인으로 묶이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도출된 이미지 차원은 매력성, 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92, .88, .79, .73, .59로 타당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9.4%로 5개의 요인 중 가장 비중있는 요인으로, 이에 포함된 형용사쌍은 구매하고 싶은-구매하고 싶지 않은, 세련된-촌스러운, 보기 좋은-보기 싫은, 매력 있는-매력 없는, 선호하는-선호하지 않는, 감각 있는-감각 없는, 유행에 앞선-유행에 뒤떨어진, 자연스러운-어색한의 8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매력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세련되고, 보기 좋고, 감각이 있으며, 유행에 앞선 스타일을 보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는 20대 젊은 여성들의 매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인 2는 외향적인-내향적인, 시원한-따뜻한, 동적인-정적인, 진보적인-보수적인, 사교적인-비사교적인,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발랄한-점잖은의 7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5.9%로 나타나 매력성 요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요인 3은 단정한-단정치 못한, 깔끔함-깔끔하지 않은,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안정된-불안정한, 신중한-신중하지 않은, 품위 있는-품위 없는의 6개 형용사쌍으로 품위에 관련된 형용사쌍이 많이 포함되어 '품위성'이라 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2.0%로 나타났다. 요인 4는 강한-약한, 강렬한-은은한, 대

담한-소심한의 3개의 형용사쌍만이 포함되어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8.2%로 나타났다. 요인 5는 따뜻한-차가운, 감성적인-이성적인, 부드러운-딱딱한의 3개의 형용사쌍으로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잘 반영되어 '온유성'이라 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2%로 나타났다.

도출된 5개의 이미지 차원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7%로 나타났다. 특히 매력성과 활동성 요인의 설명력은 47.3%로 산출되어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 연구⁴³⁾와 마찬가지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서도 중요한 차원임이 규명되었다.

2.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단서의 영향

응답자를 대상으로 단서인 의복 스타일,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과 폭, 색상 및 명도 톤 조합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5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5가지 단서 모두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미지 차원별로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을 영향을 주는 단서간의 유의적인 상호 작용 효과를 <그림 1~12>에 제시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1) 매력성 차원

<표 4>에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매력성 차원을 보면,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 문양 폭, 의복 스타일이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은 매력성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MCA 평균값의 차를 살펴보면,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은 수평일 때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문양 방향이 수직일 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폭은 문양과 바탕의 간격이 10.0cm로 가장 넓은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는데, 특히 문양 폭이 가장 좁은 1.6cm일 때 구매하고 싶고, 세련되고, 보기 좋은 것으로, 의복 스타일은 자켓/스커트로 포멀 웨어를 착용했을 때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43) 문주영, 강경자, *Op. cit.*, pp. 1-15.

<표 3>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성(h ²)
요인 1. 매력성 요인						
구매하고 싶은-구매하고 싶지 않은	.82	.13	.04	.00	.05	.70
세련된-촌스러운	.80	.21	.15	.05	.08	.71
보기 좋은-보기 싫은	.76	.14	.26	-.14	.08	.69
매력 있는-매력 없는	.74	.28	.07	.19	.15	.69
선호하는-선호하지 않는	.74	.29	.14	.03	.09	.66
감각 있는-감각 없는	.73	.35	.11	.11	.09	.70
유행에 앞선-유행에 뒤떨어진	.72	.26	-.01	.25	.13	.67
자연스러운-어색한	.64	.09	.34	-.26	.09	.61
요인 2. 활동성 요인						
외향적인-내향적인	.20	.75	.02	.26	.08	.68
시원한-답답한	.27	.74	.13	.03	-.03	.65
동적인-정적인	.11	.70	.01	.14	.18	.55
진보적인-보수적인	.30	.70	-.02	.17	.10	.62
사교적인-비사교적인	.24	.68	.29	.04	.11	.62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25	.67	.20	.29	.00	.63
발랄한-점잖은	.29	.58	-.20	.13	.27	.55
요인 3. 품위성 요인						
단정한-단정치 못한	.05	.04	.75	-.06	.01	.57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09	.24	.73	-.07	.05	.61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00	-.19	.69	-.09	.15	.54
안정된-불안정한	.19	.26	.67	-.16	.10	.59
신중한-신중하지 않은	.25	-.03	.60	.31	-.01	.53
품위 있는-품위 없는	.36	.08	.54	.17	.04	.45
요인 4. 현시성 요인						
강한-약한	.06	.16	.07	.80	-.04	.68
강렬한-은은한	-.04	.26	-.13	.69	.02	.56
대담한-소심한	.11	.42	-.05	.65	.10	.62
요인 5. 온유성 요인						
따뜻한-차가운	.09	.12	.19	-.04	.76	.63
감성적인-이성적인	.13	.16	-.06	.19	.73	.62
부드러운-딱딱한	.30	.11	.29	-.26	.55	.55
고유치	5.24	4.30	3.24	2.21	1.67	16.66
총 변량의 %	19.40	15.91	12.00	8.20	6.19	61.71
설명된 변량의 %	31.44	25.79	19.45	13.28	10.0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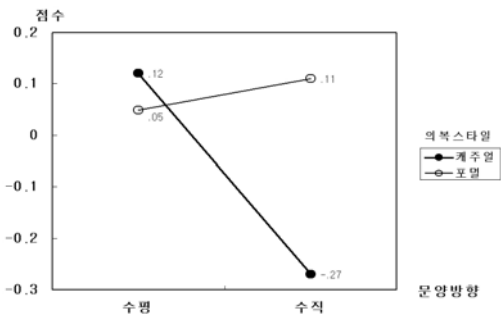
이와 같이 매력성 차원에서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은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 문양 폭과 색상 조합은 상호 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표 4〉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의 스트라이프 문양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매력성 요인		활동성 요인		품위성 요인		현시성 요인		온유성 요인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주효과	문양 방향(A)	13.22	14.00***	3.78	4.23*	.50	.52	48.26	56.38***	19.49	21.08***
	문양폭(B)	3.47	3.67*	6.14	6.86***	2.62	2.75*	.57	.66	.56	.61
	의복 스타일(C)	11.89	12.60***	42.07	47.02***	15.32	16.13***	40.51	47.32***	5.53	5.98*
	색상 조합(D)	1.39	1.47	6.17	6.90**	4.94	5.20**	.34	.39	6.31	6.83**
	명도톤 조합(E)	2.24	2.38	13.60	15.20***	12.38	13.03***	54.92	64.15***	6.72	7.27***
2원 상호 작용 효과	A×B	1.90	2.02	1.85	2.07	2.84	2.99*	1.82	2.12	.08	.08
	A×C	5.40	5.72***	8.99	10.05***	2.56	2.70*	3.28	3.83**	8.92	9.65***
	A×D	2.28	2.42	.10	.11	.59	.62	.64	.75	.19	.21
	A×E	.82	.87	1.87	2.09	.15	.16	1.25	1.46	1.34	1.45
	B×C	23.57	24.97***	.69	.77	18.55	19.53***	8.06	9.42**	.25	.27
	B×D	5.41	5.73**	.09	.10	.42	.45	1.22	1.43	1.42	1.53
	B×E	1.13	1.20	.47	.52	.48	.51	.63	.74	1.32	1.43
	C×D	.49	.52	.07	.08	.93	.98	.62	.72	.19	.21
	C×E	.75	.79	6.13	6.85***	.28	.30	.06	.07	2.50	2.70*
D×E	1.11	1.18	1.44	1.60	.75	.79	1.22	1.42	2.53	2.74	
MCA 분석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문양 방향 (A)	수평	.08		-.04		-.02		-.16		.10	
	수직	-.08	.08	.04	.04	.02	.02	.16	.16	-.10	.10
문양폭 (B)	1.6cm	.05		.00		-.10		.04		-.02	
	4.0cm	.04		.15		.00		.01		.01	
	6.4cm	.04		-.03		.07		.00		.04	
	10.0cm	-.13	.07	-.12	.10	.04	.06	-.05	.03	-.03	.03
의복 스타일(C)	캐주얼	-.08		-.15		.09		-.15		-.05	
	포멀	.08	.08	.15	.15	-.09	.09	.15	.15	.05	.05
색상 조합 (D)	빨강/청록	-.01		-.09		.08		.02		-.03	
	노랑/남색	-.04		-.01		-.10		-.02		.11	
	파랑/주황	.05	.04	.10	.08	.02	.07	.00	.02	-.08	.08
명도 톤 조합 (E)	L/Dk	-.05		.25		-.18		.37		.09	
	Dk/L	-.03		-.08		-.09		.21		-.16	
	P/G	.10		-.12		.15		-.25		.09	
	G/P	-.02	.06	-.05	.15	.12	.14	-.32	.29	-.02	.10
Multiple R ²		.15		.20		.15		.23		.17	
Multiple R		.39		.44		.38		.48		.4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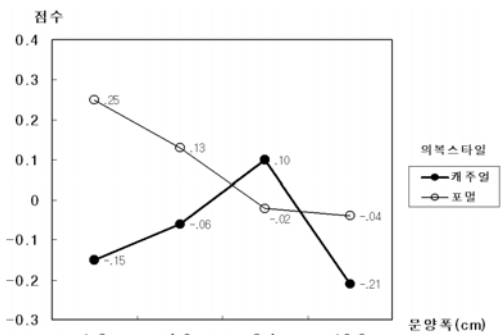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복 스타일과 문양 방향의 상호 작용 효과를 〈그림 1〉에서 보면, 문양 방향이 수평인 경우는 의복 스타일이 캐주얼이든 포멀이든 상관없이 매력적으로 평가되었고, 문양 방향이 수



〈그림 1〉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직인 경우, 포멀 스타일은 매력적인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의복 스타일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의복 스타일이 캐주얼인 경우 문양 방향에 따라 착용자의 매력성 이미지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복 스타일과 문양 폭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그림 2〉에서 보면, 문양 폭이 1.6cm, 4.0cm의 경우 포멀 스타일이 문양 폭이 6.4cm인 경우는 캐주얼 스타일이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져 문양 폭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문양 폭이 10.0cm로 넓어지면 의복 스타일에 상관없이 매력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체로 캐주얼보다 포멀 스타일이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어 동일한 문양 폭이라도 스타일간에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력성 이미지 평가는 의복 스타일에 따라 또는 같은 의복 스타일도 스트라이프 문양 폭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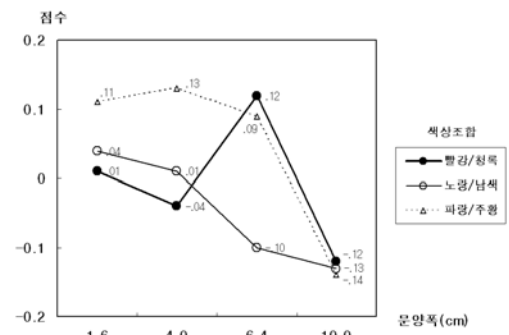
매력성 이미지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색상 조합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 〈그림 3〉과 같다. 문양 폭에 따라 색상 조합 간에는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양 폭이 1.6cm일 때는 색상 조합에 상관없이 멋있고 세련되고 매력 있는 이미지로, 10.0cm일 때는 매력 없는 이미지로 평가되어 문양 폭이 너무 커지면 색상 조합에 상관없이 매력성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파랑/주황 배색은 문양 폭이 10.0cm일 때를 제외한 모든 폭에서 매력적으로 나타났다.

노랑/남색으로 배색할 때는 문양 폭을 1.6cm, 빨강/청록일 때는 6.4cm로 하는 것이 매력성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배색 조합에 따라 문양 폭에 의한 이미지 차이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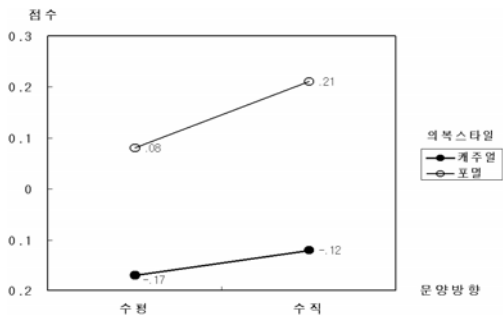
2) 활동성 차원

〈표 4〉에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 조합에 대한 활동성 차원을 보면, 5가지 의복 단서인 스트라이프 문양 방향, 문양 폭, 의복 스타일, 색상 조합, 명도 콘트라스트 조합 모두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문양의 폭, 의복 스타일, 색상 조합이 활동성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단서 중 의복 스타일은 문양 방향, 명도 톤 조합과 각각 상호 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 〈그림 4〉와 같다.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보면, 의복 스타일이 문양 방향보다 더 두드러진 단서로 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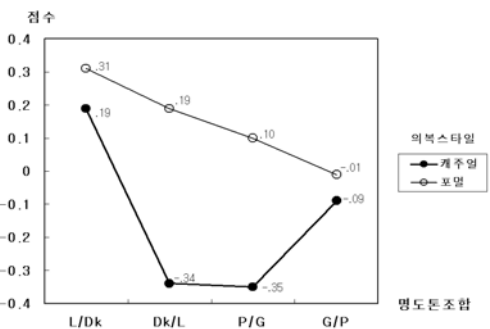
〈그림 3〉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색상 콘트라스트 조합의 상호 작용 효과.



〈그림 4〉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되어 문양 방향에 관계없이 의복 스타일에 따라 활동성 이미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복 스타일이 포멀 웨어인 경우에 문양 방향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지각된 반면에 캐주얼 웨어인 경우에는 문양 방향이 수평이든 수직이든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어 포멀 웨어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문양 방향이 수직인 포멀 스타일의 의복 착용자가 가장 외향적이고, 시원하고, 동적이고, 진보적이며 사교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활동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의복 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의 상호 작용은 〈그림 5〉와 같다. 명도 톤 조합 L/Dk는 의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지만 Dk/L 톤 조합은 의복 스타일에 따라 활동성 이미지 지각에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포멀한 스타일의 의복은 G/P 톤을 제외하고 긍정적으로 지각된 반면에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은 L/DK를 제외한 나머지 명도 톤 조합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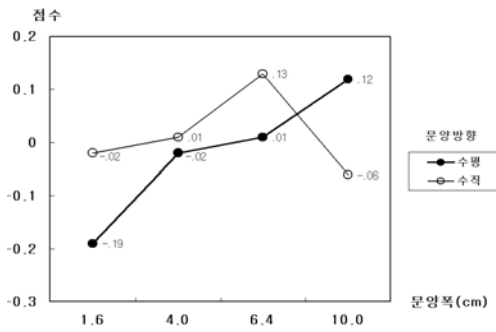
〈그림 5〉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의 상호 작용 효과.

었다. 따라서 같은 의복 스타일이라도 명도 톤 조합에 따라 활동적인 이미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문양과 배경의 색채 대비 정도가 문양의 성격과 착용자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며 동일한 색상의 명도 콘트라스트도 의복 스타일에 따라 활동성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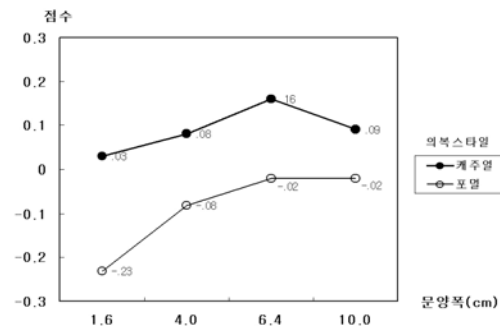
3) 품위성 차원

품위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문양 방향을 제외한 4가지 요인 즉, 문양 폭, 의복 스타일, 색상 조합, 명도 톤 조합이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의복 스타일과 색상 조합이 품위성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CA 평균값의 차를 살펴보면, 품위성 차원에서 문양 폭이 6.4cm, 10.0cm로 클 때 긍정적으로, 문양 폭이 좁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 캐주얼 웨어가 포멀 웨어보다 더 단정하고, 깔끔하고, 안정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색상 조합에서는 노랑/남색을 제외한 두 가지 배색 빨강/청록, 파랑/주황 모두를 긍정적인 품위성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명도 톤 조합에서는 L/Dk 톤 조합과 반대 톤 배색 조합인 Dk/L는 품위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톤 배색으로 지각된 반면에, P/G와 폭과 간격이 반대로 조합된 배색인 G/P는 품위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G, G/P 톤 조합은 Dk/L와 L/Dk 톤 조합에 비해 대체로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톤 배색으로 색상이 더 밝고 차분해 보이는 색상 조합으로 지각되어 착용자의 이미지를 더 깔끔하고 안정된 이미지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의복단서들이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상호 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문양 방향과 문양 폭 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그림 6〉에서 보면 문양 방향에 상관없이 문양 폭이 1.6cm이고 방향이 수평일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문양 폭이 4.0cm일 경우는 문양 방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 반하여 문양 폭이 6.4cm나 10.0cm인 경우는 문양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문양 폭이 6.4cm인 경우에는 수평보다 수직 방향이, 문양 폭이 10.0cm인 경우에는 수평 방향이 품위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수직 방향은 품위 없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는 문양 방향에 따라 품위성 이미지가 다르게 인식됨을 의미하며, 문양



〈그림 6〉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문양 폭의 상호 작용 효과.



〈그림 8〉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폭이 클수록 품위성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문양 방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짐을 나타낸 결과이다.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그림 7〉에서 살펴보면, 캐주얼 스타일은 문양 방향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품위성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그 중에서도 수평 방향이 수직 방향보다 더 품위 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포멀한 스타일은 문양 방향이 수직일 경우, 품위 있는 이미지를 주지만 수평일 경우는 품위 없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캐주얼 스타일 즉 티셔츠/팬츠를 착용할 때는 수평 방향의 스트라이프를, 포멀 스타일 즉 자켓/스커트를 착용할 때는 수직 방향의 스트라이프를 선택하는 것이 품위성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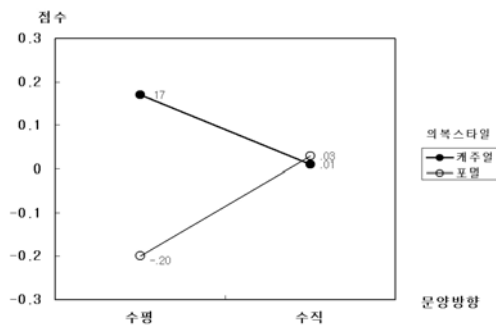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 간의 상호 작용을 〈그림 8〉에서 보면, 스트라이프 문양의 폭에 따라 의복 스타일간에는 품위성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폭

에서 모두 의복 스타일에 따라 이미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모든 폭에서 캐주얼 스타일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에 포멀한 스타일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특히 폭이 1.6cm일 때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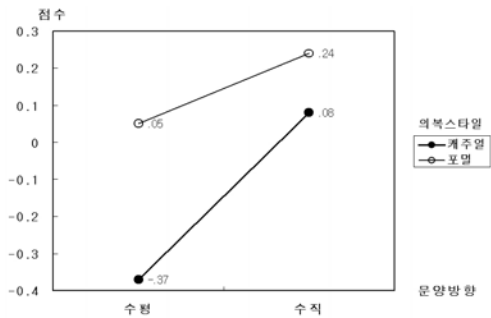
4) 현시성 차원

현시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 색상 조합이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평균값의 차를 통해 주효과를 살펴보면, 문양 방향이 수직일 때 강하고, 대담하게 지각되었고, 문양 방향이 수평일 때는 약하고, 은은하며 소심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의복 스타일은 캐주얼 웨어보다 포멀 웨어, 색상 조합은 빨강/청록일 때 가장 현시적으로, 노랑/남색일 때는 가장 현시적이지 못한 배색으로 평가하였다. 색상 조합은 현시성 차원에서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미쳤지만 다른 단서와 상호 작용하여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에서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의복 스타일이 포멀 웨어인 경우에는 문양의 방향에 따라 현시성 이미지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캐주얼인 경우에는 문양 방향에 따라 현시성 이미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교적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포멀 스타일은 문양의 방향이 수직이든 수평이든 방향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에 캐주얼 스타일은 스트라이프 문양 방향을 수직으로 할 경우 현시적인 이미지를, 수평일 경우에는 보다 약하고 소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그림 7〉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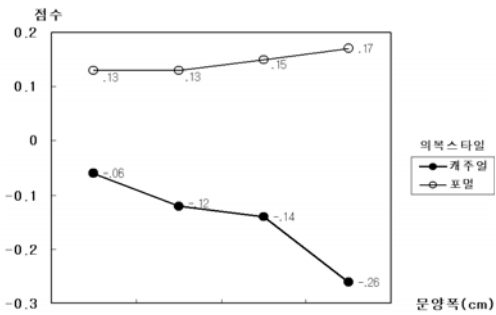
〈그림 9〉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의복 스타일에 상관없이 문양의 방향이 수직일 때 현시적인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이었다.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간의 상호 작용을 〈그림 10〉에서 보면, 문양 폭에 상관없이 의복 스타일이 포멀일 경우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폭이 가장 넓은 10.0cm가 가장 대담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 스타일이 캐주얼인 경우, 문양 폭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특히 문양의 폭이 10.0cm일 때 가장 약하고 소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문양의 폭이 좁을 때는 의복 스타일 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문양의 폭이 넓어질수록 의복 스타일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시성 이미지는 문양의 폭보다 의복 스타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온유성 차원

온유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의복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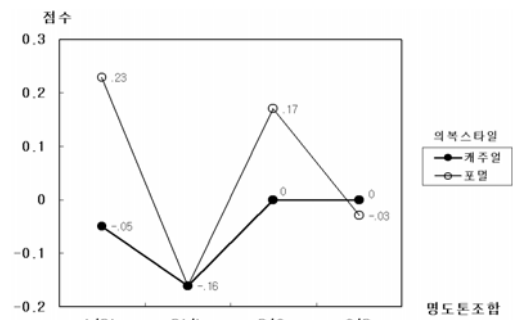


〈그림 10〉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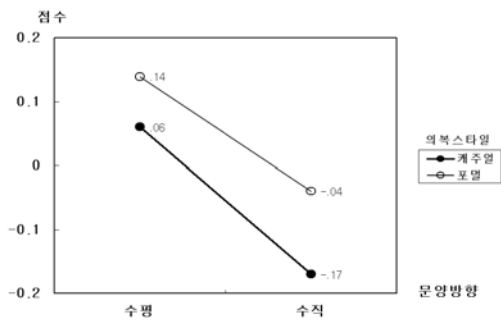
과 문양 방향, 명도 톤 조합은 독립적으로도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 의복 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은 상호 작용하여서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 평균값의 차를 보면, 문양 방향이 수평일 때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수직일 때는 차갑고 이성적이며 딱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명도 톤 조합에서는 의복 스타일이 캐주얼보다는 포멀 웨어일 때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의복 스타일에 따라 온유성 이미지가 다르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색상 조합에서는 빨강/청록, 파랑/주황은 부정적으로, 명도 톤 조합에서는 L/Dk, P/G일 때 긍정적으로, Dk/L, G/P일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같은 명도 톤 조합이라도 빨강, 노랑, 파랑이 고명도이고, 청록, 남색, 주황이 저명도일 때가 더 온유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같은 명도톤의 조합이라도 어떤 색상을 더 고명도로 배색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의복 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의 상호 작용 효과를 〈그림 11〉에서 살펴보면, 명도 톤 조합이 Dk/L, G/P 톤일 때는 의복 스타일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L/Dk, P/G 톤일 때는 의복 스타일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Dk/L, G/P의 명도 톤 조합은 의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온유하지 못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명도톤이 반대로 조합된 L/Dk, P/G 톤 배색은 의복 스타일간에 차이를 보여 포멀 스타일은 긍정적으로 지각된 반면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은 상호 작용하여 동일한 스타일이라도 배색되는 명도의 톤 조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의복 스타일과 문양 방향의 상호 작용



〈그림 11〉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의 상호 작용 효과.



〈그림 12〉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효과를 〈그림 12〉에서 나타내었다. 의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수평 스트라이프는 온유한 이미지로, 수직인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포멀한 스타일에서 강하게 나타나 온유성 이미지에 는 의복 스타일보다는 문양 방향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양 중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스트라이프 문양을 문양 방향과 폭, 의복 스타일, 배색되는 두 색상 간에도 콘트라스트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자극물을 대상으로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27개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 차원을 밝혔다. 또, 이들 단서들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양 방향과 폭, 의복 스타일,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 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매력성, 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요인으로 5개의 이미지 차원이 도출되었다. 각각 도출된 요인 중 매력성 요인이 가장 중요한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단서의 영향력은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별로 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이미지 차원에서 의복 스타일, 명도 콘트라스트 톤 조합, 문양 방향이 중요한 단서로 나타났다.

둘째, 5개의 디자인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

여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을 통해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매력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일한 색상의 배색도 문양 폭에 따라 매력성 정도가 다르게 지각되므로 색상 배색과 문양 폭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캐주얼보다는 포멀 스타일이 이미지 연출에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다음으로 수직 방향의 문양이나 L/Dk 톤 조합의 명도 콘트라스트가 문양의 성격과 착용자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된 스트라이프 의복으로 ‘품위성’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활동성’ 이미지 차원과 마찬가지로 우선 의복 스타일의 선택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문양 방향과 문양 폭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품위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캐주얼 스타일에 문양 폭은 6.4cm, 문양 방향은 캐주얼 스타일인 경우 수평 방향의 문양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현시성’ 이미지 차원에서도 다른 디자인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여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의복 스타일을 포멀 웨어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양 방향은 의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수직으로, 문양 폭은 의복 스타일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포멀 스타일은 문양 폭이 가장 큰 10.0cm, 캐주얼 스타일은 문양 폭이 가장 작은 1.6cm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연출 방법이었다. ‘온유성’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문양 방향, 의복 스타일, 명도 톤 조합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의복 스타일을 포멀 웨어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의복 스타일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명도 톤 조합은 L/Dk, P/G 톤 조합으로, 문양 방향은 수평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문양 방향과 폭, 의복 스타일, 콘트라스트 색상과 톤 조합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각기 독립된 정보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각 이미지 차원에 독립된 단서들이 지각단계에서 상호 작용으로 통합되어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정보들은 지각단계에서 서로 통합되어 지각되므로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복 스타일과 문양 배색, 방향, 폭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는 Asch(1946)의 형태적 접근 이론을 지지해 준다.

일반적으로 콘트라스트 배색은 너무 강렬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연출하기 힘든 배색으로만 인식되어 있어 톤 변화를 고려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양 중 가장 기본적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은 스트라이프 의복을 중심으로 문양 방향과 폭, 색의 3속성 중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시켜 다양한 이미지와 조형성을 규명함으로써 문양과 패션 디자인 개발 및 선택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의복을 비롯한 제품 선택 및 연출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 변화나 디자인 요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콘트라스트 배색에 의한 스트라이프 의복디자인 기획시,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요소와 자극물을 지각하는 대상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자, 문주영, 임지영 (2005). “치마·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연구: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권 3호.
- 강경자, 정수진 (2005).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4보): 콘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6호.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4호.
- 김주은 (2000). “의상 디자인 줄무늬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성 (2001). *색채학*. 서울: 일진사.
- 김혜수 (2003). “스트라이프에 내재된 리듬특성과 복식디자인을 위한 자원화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혜수, 김영인 (2004). “자연물에 나타난 스트라이프의 선과 색채에 의한 리듬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권 1호.
- 문주영, 강경자 (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 문주영, 강경자 (2006). “상의 스트라이프의 방향, 폭, 색상 대비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권 3호.
-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2003). “수직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 요소와 감성과의 관계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6권 1호.
- 양지영 (2005).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보색 배색의 색채 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1990). “원피스 드레스의 줄무늬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 이은영 (1992).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이영진 외 (2002). “블록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 요소가 감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감성과학회지* 5권 3호.
- 임지영 (2006).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 방법에 따른 조화감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해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길이와 모자유행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 조민정 (2004).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 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4호.
- 최정화 (2005). “티셔츠 디자인에 대한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9권 11호.
- 팽숙경, 강경자 (2005).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9권 9/10호.
- Birren, F. (2003). *색채의 영향*. 김진한 역. 서울: 시공사.
- Deborah T. S. (1996). *색채심리와 디자인*. 임만택 역. 서울: 태림문화사.
- Michel Pastoreau (2003). *악마의 무늬 스트라이프*. 강주현 역. 서울: 이마고 출판사.

- 居宿昌義, 田中佳子 (1982). *염직디자인의 기법*. 이신재 역. 서울: 세진사.
- 本明寛 (1993). *조형심리학 입문*. 김수석 역. 서울: 지구문화사.
- John, G. (1999). *Color and Meanj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bayashi Shigenobu (1987). *A Book of Colors*. Kodansha Amer Inc.
- Marilyn, R. D. (1987).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Marin, L. D. (1987).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上野青一廊 (1980). “衣服の嗜好に關る統計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誌* Vol. 21, No. 7.
- 壁谷久代 加藤雪枚, 槍山藤子 (1980). “衣服に對する色彩と圖形の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誌* Vol. 21, No. 8.
- 川崎秀昭 (2002). *配色入門*.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